



고창수박연합회,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최우수

고창군수박연합회(회장 김연호)가 지난 16일 열린 농촌진흥청 주관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평가에서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농촌진흥청과 외부 농업전문가, 국민심사위원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1차에서 7개소가 선정된 뒤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고창군수박연합회가 최우수상으로 선발됐다.

고창군수박연합회는 고창수박의 브랜드화를 위해 2020년 7개 작목단을 통합해 만들었다. 현재 257명의 회원이 331ha에 수박 농사를 지으며 고창수박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 대부분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획득하였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에 주축이 되어 앞장선 결과 지난해 9월 20일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6호로 등록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고창수박 지리적표시 등록에 발맞춰 고창수박 명품화를 위해 고창수박 명품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올해 5월 말부터 6월까지 신세계 및 현대백화점과 고창마켓 등에서 총 5,000명이 한정 수량으로 고창 명품 수박을 출시하였다.

특히 첫 출시 기념행사로 진행된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경매 행사에서는 고창수박 한 덩어리가 무려 500만원에 낙찰되는 진기록을 세우며, 고창수박의 브랜드 가치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행안면, 취약계층 어르신 나눔 행사 추진

부안군 행안면(면장 은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홍우)주관으로 관내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21명을 모시고 정서적 위로와 사회적 교류를 위한 나눔 행사를 지난 16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를 평소 문화·여가 활동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를 대접하며 영화관람과 손으로 만들어보는 다육이 화분 체험을 통해 성취감과 웃음의 시간으로 보내며, 기모장갑 등 5종의 선물세트 꾸러미를 어르신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김홍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제 독거노인 안부확인 프로젝트 성료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서정수)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김제교통휴먼시아 아파트에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독거노인 안부확인 프로젝트 '우리보고 조리보고'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지난 3월 5일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김제교통휴먼시아 아파트, 교원동 행정복지센터,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 김제제일사회복지관 등 지역기관이 협력해 독거노인 생명인심 네트워크 구축하기로 하고 협약식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자살통계를 기반으로 자살사망률이 높은 지역 내 임대아파트를 선정하고 10명의 자살위험군 독거노인에게 △정신건강 예방 서비스 △정기 안부 도시락 지원, △1:1 맞춤형 심리지원, △생명맞춤 가꾸기, △생명명동반 걷기, △희망공간 가꾸기 프로그램을 매달 추진한 결과 우울감 감소와 자존감 향상이라는 뚜렷한 심리·정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안부 도시락 제공에 대한 호응이 이어져 이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정기 방문을 통한 관계형성과 정서적 지지의 매개 역할을 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도시 기반 조성 넘어 이웃 삶까지 살핀다

전주시 토목직 상록회, 나눔캠페인 '전주 함께라면'에 성금 500만원 기부

전주시 토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주시 토목직 상록회(회장 임정빈 광역도시조성과장)는 17일 지역 내 고립·위기가구를 돕기 위한 전주형 나눔캠페인인 '전주 함께라면' 추진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으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토목직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시민을 마주하며 느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다.

평소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등 눈에 띄지 않지만 시민의 하루를 지탱하는 기반 시설을 현장에서 담당해 온 토목직 공무원들은 이번 나눔을 통해 시민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공직자의 역할을 실천했다.

임정빈 회장은 "토목 행정은 도시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시민의 생활이 있다"면서 "이번 기부가 혼자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시민 곁에서 따뜻한 역할을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주 함께라면' 사업을 통해 고립·위기가구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권희성 기자

“교정인의 사명, 지역사회서 봉사로 이어가겠다”

교정동우회 전주지회 송년행사 성황

교정동우회 전주지회(지회장 김재영)는 17일 전주 백승회관 3층 연회장에서 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행사를 열고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며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양지 그름사문드의 식전 공연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시종일관 엄숙하면서도 뜻깊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삼 대한민국 교정동우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윤순풍 전주교도소장, 조한영 군산교도소장, 김민현 정읍교도소장 등 전북 지역 교정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정동우회 전주지회의 송년 행사를 축하했다.

행사에서는 교정동우회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표창도 이어졌다.

김재영 전주지회장은 장기간 교정동우회 회장을 맡아 헌신적인 활동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정동우회 중앙회장 표창인 '장기봉사상'을 수상했다.



또한 최고령 회원으로서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이어나 김용권 회원에게는 '노익장상'이 김재영 회장으로부터 수여됐다.

이날 송영삼 중앙회장은 전주지회에 격려금을 전달하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행사는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밝은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진안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사례 '대상'

진안군은 지난 16일 2025년도 농촌인력증가센터(농촌형·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우수 사례 성과발표회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주체인 진안군 조공법인(대표 최홍진)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각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총 6개 실적과 주요 사업성과가 우수한 농촌형 5개소와 공공형 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기관들은 대전 오노마 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실적보고 PPT 발표와 현장 운영실태 사진 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진안군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4년째 운영 중인 진안군 조공법인이 2022년부터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를 통해 농업경쟁 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농협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군 전체 농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운영 모델을 정착시킨 점이 대상 수



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진안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사업은 진안군 조공법인이 운영을 총괄하고, 진안농협·부귀농협·백운농협 등 3개 지역농협이 권역별로 농가 신청 접수와 숙소 및 근로자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설명회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관)은 지난 16일, 장수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6 나눔(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전에는 초등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나눔학교 운영 설명회를, 오후에는 중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설명회를 각각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안내를 통해 2026학년도 나눔·방과후학교 운영의 안정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금동, 강정이기가막혀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지난 15일 '강정이기가막혀' (대표 김영화)를 금동 착한가게 28번째 업체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 가게 나눔 캠페인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김영화 대표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교육지원청, S2B·지역업체 이용 활성화 교육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유효선)은 지난 16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담당자 및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S2B 및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 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계약 과정의 청렴도를 높이고, 학교장터(S2B) 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업체 우선 구매를 확대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우정청, '우정산타 희망배달' 펼쳐

전북지방우정청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16일 원광모자원을 찾아 한부모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우정산타 희망배달'을 진행했다.

이날 전북지방우정청 행복나눔봉사단은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의류와 장난감 책 등으로 준비한 소원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연말의 정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자치분권포럼, 연말 맞아 이웃돕기 백미 전달

자치분권포럼(이사장 이명연)은 17일 오전 11시 전주시청에서 지역 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이웃돕기 백미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자치분권포럼은 총 500만원 상당의 백미를 전달하며, 해당 물품은 관계 기관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배분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이명연 이사장을 비롯해 진재석·오인섭 대표, 소순영 이사 최경의 사무총장, 문승우 군산자부 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최길용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명연 이사장은 "연말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치분권포럼은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단체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나눔과 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도 성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대 이진석 실장, RISE 유공 도지사 표창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이진석 RISE교육지원실장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 및 산학협력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진석 실장은 2004년 전주대학교에 입사한 이후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LINC), LINC+, LINC 3.0 등 주요 국책

사업을 총괄하였으며, 현재 RISE사업단 교육지원실장으로서 20년 넘게 대학 산학협력 행정을 이끌고 있다. 특히 RISE 체계 전환 이후에는 지자체·산업계·대학·연구기관을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김재훈 기자



'모두 다 같이 그림책 작가' 프로젝트 성료

김제시립도서관은 '모두 다 같이 그림책 작가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그림책을 만들며 자신감을 얻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시작한 그림책 작가되기 프로젝트는 25년에는 김제김산초등학교, 죽산초등학교, 청운초등학교, 금구 신흥마을 경로당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으며, 총 75명의 참여자가 15회차에 걸친 수업을 통해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에 도전해 총 17권의 그림책을 완성했다.

김제시립도서관은 '모두 다 같이 그림책 작가 프로젝트' 외에도 △시와 수필 △브랜치 글쓰기 △책그리기 등 세대별 맞춤형 글쓰기 강좌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창의적 사고와 내적 성장을 돕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일유엔아이,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 완료

남원시보건소와 정신재활시설 성일유엔아이는 정신질환자의 안전 확보와 환경 개선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마당 재포장 공사와 노후 장비 보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입소·이용자의 재활훈련 여건 개선과 정신재활훈련을 강화하고, 조기 사회복귀 및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개소 20년이 지난 성일유엔아이는 시설 노후화로 인해 △낙상사고 등 인명피해 위험 △배수 불량에 따른 시설 자산 피해 △환경 미관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설은 2025년 상반기 6·난방기, 세탁기, 보일러 등 주요 장비보강과 마당 재포장 공사를 실시해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 동선을 확보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사 완료 이후 국토안전원이 9월에 실시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에서 보통 이상의 안전 등급을 획득하며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과 이번 기능보강사업의 적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